



2026. 9. 8 (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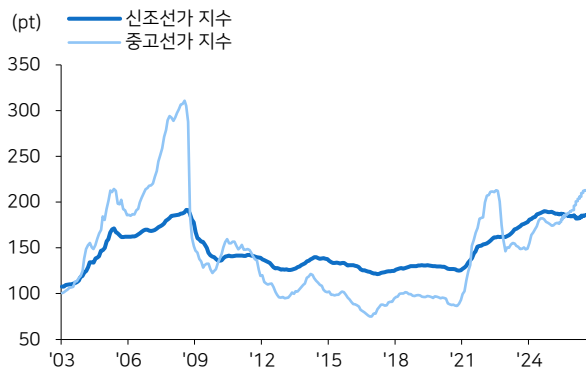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6.3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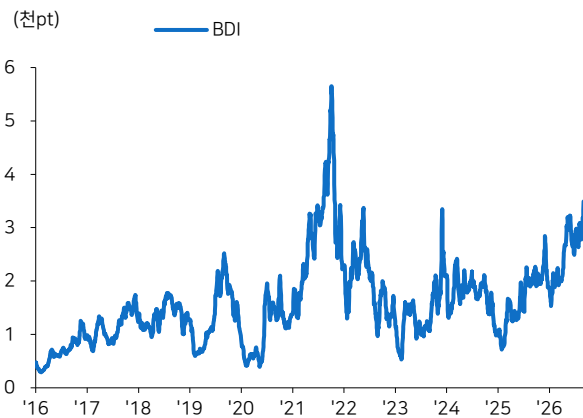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32.0달러 (+6.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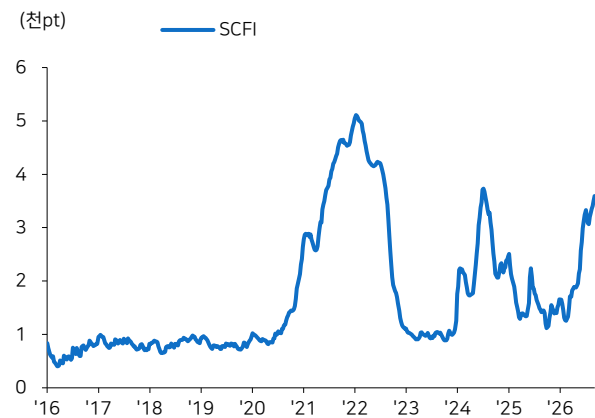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628.0p (+140.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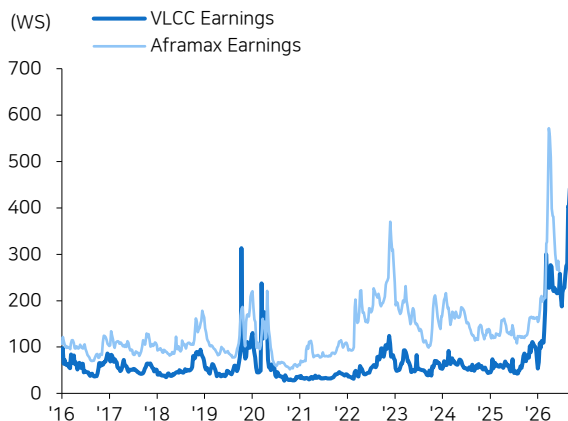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590.1 (+80.5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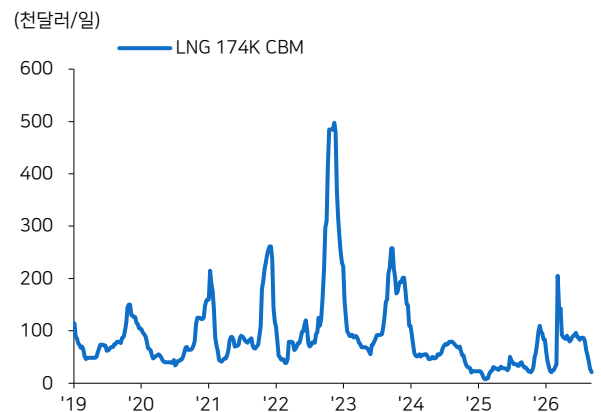
VLCC Spot Rate

441.8WS (+40.2p WoW)



LNG Spot 운임

21.0천달러 (-7.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오스탈 CEO "한화 인수 제안, 美 국방부 수뇌부 지지 받아" (더구루)

<https://zrr.kr/NyCVW6>

한화그룹의 Austal USA 인수가 미 국방부 고위 인사들의 지지를 받으며 미국 외국인투자·안보 관련 규제 승인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화는 최대 12억달러에 Austal USA 사업 법인과 자산 100%를 인수해 미 해군 수주에 필요한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미국의 조선업 지원 정책과 연계해 현지 고용·기술 이전·공급망 구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짐. Austal은 미국 사업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호주·아시아 지역 조선소와 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어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으로 보도됨.

"인니 해양 인프라 선점" 대형 조선사부터 기자재 기업까지 현지 실사 전개 (더구루)

<https://zrr.kr/AX2qm1>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특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맞춰 방산·조선·원전 등 신성장 분야 협력을 확대하며, 인도네시아 내 조선소 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알려짐. 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들은 현지 조선소 개발과 수리조선, 친환경 선박 기술, 인력 양성 및 기술 이전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해짐. 양국은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인도네시아의 해운·조선 수요를 결합해 현지 산업 생태계와 고용을 확대하고 동남아 조선 거점을 확보하는 상생 협력을 강화할 방침으로 보도됨.

ExxonMobil takes over from TotalEnergies at Papua LNG (Upstream)

<https://zrr.kr/rCYnBK>

TotalEnergies가 Papua LNG 프로젝트 운영권을 ExxonMobil에 넘기고 보유 지분 9.1%를 기존 파트너들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짐. 지분 조정 후 ExxonMobil이 34.1%로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운영을 맡으며, TotalEnergies는 20% 지분과 연간 150만톤 규모 LNG 인수권을 유지한다고 전해짐. Total Energies는 프로젝트 비용 절감과 설계 최적화를 통해 자본비용을 약 140억달러까지 낮췄으며, 최종투자결정(FID)은 올해 말로 예정되었다고 보도됨.

5년 간 해양 플랜트 일감 못 탄 한화오션... 4조원 규모 나미비아 프로젝트 수주 '안간힘' (조선비즈)

<https://zrr.kr/3e90KI>

한화오션이 나미비아 비너스 유전 개발에 투입될 FPSO 수주에 참여해 SBM Offshore와 경쟁 중이나, TotalEnergies와 나미비아 정부 간 재정 조건 합의 지연으로 최종투자결정(FID)이 내년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알려짐. 비너스 프로젝트는 일일 15만 배럴 생산 규모의 FPSO를 건조하는 약 30억달러 규모 사업으로, TotalEnergies가 FID를 확정하면 FPSO 발주도 결정될 예정으로 전해짐. 한화오션은 최근 저탄소 표준 FPSO 설계 관련 인증을 확보하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SBM Offshore의 풍부한 수주·운영 실적과 가격 경쟁력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라고 보도됨.

Clarksons Securities raises tanker rate forecasts backed by 'phenomenal year' (TradeWinds)

<https://zrr.kr/Yo730k>

Clarksons Securities가 중동 정세 불안과 선박 공급 제약이 지속되면서 원유 운반선 운임 강세가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고 보도됨. VLCC 운임은 현재 하루 25만달러 수준까지 상승했으며, 2026년 하반기 평균 운임 전망을 하루 155,000달러로, 2027년 전망을 11만달러로 상향했다고 전해짐. 선박 부족으로 원유선 가동률이 이미 약 94%에 달한 가운데 내년 97%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며, 운임 전망이 추가로 상향될 여지가 있다고 알려짐.

일본 규제 완화로 전투함 수출 확대 기초, '기술 묶여팔기'로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과 경쟁 본격화 (비즈니스포스트)

<https://zrr.kr/hpr6gk>

일본이 무기 수출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함정 기술 이전·현지 생산을 결합한 수출 모델을 추진하면서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과의 전투함 수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라고 알려짐. 일본은 모가미급 호위함을 주력 수출 상품으로 앞세워 호주와 3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으며, 호주 현지에서 추가 8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까지 추진한다고 전해짐. 한국 조선사들이 가격 경쟁력과 수출 실적을 앞세우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방산·조선 산업 지원 확대가 향후 글로벌 해군 함정 시장의 경쟁 심화를 가져올 전망이다라고 보도됨.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